

FILK 게시판

연구원 소식

개원 16주년 기념식

연구원은 지난 4월 11일, 개원 16주년을 맞이하여 협회 임원 및 연구원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원 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연구원은 지난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주관 연구기관으로 그리고 병무청 지정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됨으로써 그 연구능력을 공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헤드 및 UV/IR 불꽃감지기 등 신제품 개발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 선박용 고압 미분무수 노즐을 개발하는 등 37건의 국책 및 수탁연구 과제를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제일의 방재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이 인정한 시험기관으로서 방화 및 건축재료에 대한 각종 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은 민간 자율 인증제도인 FILK 인증제도를 통해 국내 방화제품의 품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화재안전분야 기술위원회(ISO/TC92) 국내 간사기관으로서 국제 표준화 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KS규격의 국제 표준화 국책사업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출발! 연구원 금요광장

「연구원 금요광장」이 지난 6월 7일 금요일, 그 첫 마당을 펼쳤다. 「연구원 금요광장」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약 30분간 사전에 공지된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와 기타 토의의 시간으로 진행되는 직원 자율 프로그램이다.

이 날, 20여 명이 참석한 금요광장 첫 마당에서는 정광웅 기술지원부 인증지원팀장이 “제조물책임 관련 대응방안 등”의 주제로 약 15분간 주제발표를 하였고, 연구원 당직제도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을 안건으로 약 15분간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연구원 금요광장」은 팀별, 개인별 업무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수직적·수평적 대화 채널을 가동함으로써 보다 유기적인 업무 수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열린 경영의 일환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권오승 이사대우 소보원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

권오승 이사대우가 소비자보호원분쟁조정위원회 제소물책임전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소비자보호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 제34조에 의거 한국소비자보호원 내에 설치하며, 소비자 분쟁에 대한 조정 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내용을 결정하는 정부기구이다.

중소기업청과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협약 체결

연구원은 6월 28일, 중소기업청과 「2002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연구원은 2001년에도 8개 과제에 대해 8개 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컨소시엄 사업자로 참여한 바 있으며, 금년 역시 “금속 흡음재를 이용한 불연 방음판 개발” 등 모두 9개 과제에 대해 2003년 6월까지 약 1년간 (주)미래소재 등 10개 중소기업과 産·研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전문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자율적인 공동기술개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매년 정부(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용 바닥재의 화재안전성 평가방법 표준화 연구발표회 개최

연구원은 지난 7월 10일, 산업자원부 표준화 기술 개발 사업인 「건축용 바닥재의 화재안전성 평가방법 표준화」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건축용 바닥재의 화재안전성 평가방법 표준화」 연구는 실내 화재에서 바닥재를 통한 화재 확산의 평가기준 및 시험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원이 산자부 기술 표준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작년 7월부터 약 1년간 수행해 온 연구과제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실내 화재의 경우 벽과 천장이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여 바닥재를 통한 화재 확산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바닥재를 통한 화재 확산 평가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앞으로 건축용 바닥재의 화재안전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화전자(주)에 “FILK” 인증서 전달

연구원은 7월 4일, 소방설비 제조업체인 신화전자(주)(대표이사 김영경)의 'MXL수신기' 및 감지기 등 9품목에 대해 “FILK” 마크를 부여하고 품질인증서를 전달하였다.

이번에 “FILK” 인증을 획득한 MXL수신기는 미국 UL 및 FM 등록된 제품이자 NFC 72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지능형 아날로그 감지기와 접속해 고유의 화재신호를 인자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최대용량 261, 120point)로 연결된 MXL수신기들은 대등관계(Peer to Peer)로 감시/제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상호 통신이 두절된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영등포소방서 소방공무원 특별과정 실시

연구원은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간 영등포소방서 소방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과정은 선진방재기관의 화재안전기준 현황과 운영을 소개하고, 주요 4대 소방설비인 수계소화설비, 가스계소화설비, 경보설비, 제연설비의 구조원리 및 실습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선진국의 소방동향뿐 아니라 소방실무기술과 예방업무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다는 평가다.

연구원에는 지난 1998년도 전북소방본부 소방공무원

특별초청과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각 시·도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소방대 등 20여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650여 명이 방문한 바 있으며, 금년 7월 11일, 12일에도 성남소방서 예방검사요원 25명이 소방시설 검사와 관련한 연구원의 시설을 견학하였다.

“FILK”마크, 신용보증기금 보증우대 대상으로 선정

앞으로 “FILK” 마크를 획득한 방화 안전 제품의 제조업체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7월, 우리 연구원이 부여하는 “FILK”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해 “우대부문 보증대상기업”으로 지정,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부문 보증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체는 보증지원의 경우, 일반 기업이 일반우전자금의 15억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최대 30억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고, 보증한도도 연간 매출액의 1/4까지 가능한 일반 기업에 비해 1/3까지 우대 적용받게 되며, 자기자본 한도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게 된다.

미국해안경비대(USCG) 인정 획득

우리 연구원이 아시아 최초로 미국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형식승인 지정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번에 연구원이 USCG 인정을 획득한 시험분야는 국제해사기구(IMO) “화재시험절차 적용에 관한 국제기준(FTP Code)”의 Parts 3, 4, 5 및 6 등 모두 4개 분야로 선박용 내장재, 갑판재, 방화문, 방화창문, 방화담퍼, 격벽 등에 대한 시험이며, Part 1 ‘불연성시험’의 경우 해양수산부에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등재되는 즉시 추가 지정받기로 하였다. (FILK)